

# 제주 주민등록인구 한 달 새 1163명 줄어

### 2006년 특별도 출범 후 월 단위 최대 감소 2월 67만5137명에서 3월 67만3974명으로

지난달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수가 1000명 이상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제주지역 주민등록 인구수는 67만3974명으로, 지난 2월(67만5137명)에 비해 1163명 감소했다.

월별 제주 주민등록인구는 지난해 3월 한차례 감소한(268명) 이후 지난 1월(20명) 10개월만에 감소한 바 있지만, 1000명 이상 대폭 감소한 수치는 이례적이다.

세대수 역시 지난달 30만3203세대

에서 30만2580세대로 623세대가 줄어 들었다.

제주지역 인구수는 타지역 인구 유입, 외국인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출생아 및 사망자 수를 제외한 자연 증가가 사실상 멈춰 '인구절벽'에 직면했다고 평가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1월 자연증가는 81명으로 역대 최저다.

지난해 타지역에서 제주로 순유입된 인구는 총 3378명으로, 2019년 2936명보다 많았다. 이에 코로나19

를 피해 제주 입도 인구가 늘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아울러 3월 행정구역 별 주민등록 인구수는 제주시 49만1843명, 서귀포시 18만2131명으로 각각 지난 2월에 비해 810명, 353명 감소했다.

읍면동 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아라동 3만8072명으로 지난 달 3만7836명에 비해 236명이 줄어들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구좌읍이 118명(1만5530명→1만5412명), 이도2동 97명(4만9638명→4만9541명), 삼양동 82명(2만5852명→2만5770명) 순으로 감소했다.

서귀포시의 경우 대정읍이 64명(2만1947명→2만1883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중앙동 62명

(3467명→3405명), 송산동 56명(4117→4061) 순이었다.

특히 연차별로 봤을 때 이번 주민등록 인구수 감소 폭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는 ▷2006년 55만8496명 ▷2007년 55만9258명 ▷2008년 56만618명 ▷2009년 56만2663명 ▷2010년 57만1255명 ▷2011년 57만6156명 ▷2012년 58만3713명 ▷2013년 59만3806명 ▷2014년 60만7346명 ▷2015년 62만4395명 ▷2016년 64만1597명 ▷2017년 65만7083명 ▷2018년 66만7191명 ▷2019년 67만989명 ▷2020년 67만4635명 등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원희룡, 대통령에 “제2공항 추진” 건의

### “제2공항 대통령 공약” 강조 국토부·정 총리 이어 세 번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정상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당초 건의문은 원 지사가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찾은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사정상 여의치 않아, 이날 오후 공문 형태로 청와대에 보내졌다.

원 지사는 건의문에서 “4·3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추념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4·3의 진정한 해결과 함께 제주의 숙원사업이자 최대 현안이 제2공항 건설”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 건설사업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점, 국책사업인 점, 현 제주국제공항 포화 문제 등을 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 건설은 2015

년 11월 정부가 확정·발표한 국책사업으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며 “제주공항은 2019년 이미 활주로 용량 포화 등으로 결항·지연이 반복되는 불편을 넘어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공항은 양질의 일자리와 제주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하며 국가 균형 발전의 한 걸음이자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균형 발전에도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제2공항 추진을) 늦추거나 지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2공항 찬반 여론이 갈려 제주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는 문제에 대해선 “정부와 제주도가 머리를 맞대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 “제주도는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갈등 해결에 자신했다.

원 지사가 정부에 제2공항 정상 추진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 의견 제출과 그달 10일 경제권 국무총리 건의문 전달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희망근로, 코로나 실직·폐업자 우선 채용

### 314개 사업장서 1028명 채용

올해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채용 기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폐업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올해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 취업 취약 계층과 실직, 폐업자 등 생계 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을 우선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314개 사업장에서 일할 1028명을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한다.

채용 분야는 백신 접종 지원, 생활 방역 등 11개이다.

도는 4월부터 채용 공고를 내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근로 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참여 희망자 중 취업 취약 계층, 실직·폐업자, 경제 침체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기자

#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의무 제주시, 기자재 구입비 지원

제주시는 어린이집의 급식 안전 및 집단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존식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보존식이란 식중독 등 급식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리하고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 이하로 144시간(6일) 이상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신고해 보존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보존식 보관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총 사업비 8120만원을 투입, 보존식 보관용 냉동고 및 스테인리스 용기 구입 비용을 소규모 어린이집 1개소당 7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난 3월 지원 신청 접수 결과 관내 어린이집 82개소에서 냉동고 77대, 보존식 용기 388세트를 신청했으며, 제주시는 4월 중으로 기자재 구입 및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우뚱가사리 채취 한창 비가 오락가락하는 곳은 날씨를 보인 4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해안가에서 어린이들이 우뚱가사리 채취 작업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민기자

# 서귀포시, 23만2680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 개별주택 산정가격 열람도

서귀포시가 4월 중 2021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에 따른 토지주들의 의견 제출을 받는다.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3만2680필지에 대해 4월 5일부터 26일까지 가격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종합민원실, 읍면동, 일사관리 제주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http://kras.jeju.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민원실, 읍면동,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는 접수한 의견에 대해 토지 특성, 비교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만4785호(미공시 제외)의 가격(안)에 대해 가격 검증을 마치고 오는 7일까지 산정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를 받고 있다. 이어 8일부터 14일까지 의견제출가격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백금탁기자

# 소규모 농가 4차 재난지원금

서귀포시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 지원을 위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을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경작지 소재 읍면동에 있는 농·축협에서 하면 된다. 농협카드 사 홈페이지(PC, 모바일 모두 가능)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시민(서귀포시 6928명) 가운데 지난 4월 1일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자이다.

대상자는 농협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3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용 기간은 지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기간 경과 시에는 사용할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또는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로 문의(1670-2830)하면 된다. 백금탁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씹음병, 균핵병 예방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NAVER D.M 코코리 검색

## 하하농법 4월의 농사메모

**키 위** ○ 꽃비료 21-17-17 복비 4포 시비 (1,000평 기준)  
○ 히토락F(5ℓ) 50~100말 희석 500평 관주 → 자방을 크게

**만감류** ○ 꽃이 성숙개비 ○ 꽃이 콩알만할때 7일 간격 2회 해피한 그린+글루칼(포도당 칼슘)엽면시비 → 당 상승 및 자방 크게

**마늘** ○ 쫄 나올때 ○ 쫄 꺾고나서 ○ 수확 15일전 히토락 100말에 7ℓ+천연가리 엽면시비(농약혼용가능) → 비대효과  
※ 수확 15일전에 꼭 살충제를 혼용할것

**더덕** ○ 밀거름(기비)해찬골드 유박 1,000평기준 100포, 용성인비 20포, 쌀맛나 35~40포 고토석회 20~30포  
※ 이노페스를 보충해 주면 더욱 좋다(미량요소 및 히토류 공급효과)  
○ 2년차 더덕은 영양생장을 위해 아미노산 액비(닭똥로 가수 분해하여 만든 동물성 아미노산)1ℓ에 50말 엽면시비(농약혼용가능)

**“하하농법으로 농민들이 하하웃는 그날까지”**  
**(주)포트라 제주지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